

중국 지역별 내수용 수입시장 분석: 베이징(北京)시

동북아경제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이상훈 부연구위원

동북아경제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이승은 전문연구원

동북아경제실 중국권역별성별연구팀 최지원 연구원



중국 지역별 내수용 수입시장 분석 베이징(北京)시

요약

- ▶ [베이징시 내수용 수입] 베이징시는 총수입 가운데 90% 이상이 일반무역(내수용) 형태인 지역이며, 2012년을 기점으로 중간재 중심에서 최종재 중심의 수입구조로 전환
 - 가공단계별로는 최종재가 절반 이상인 5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소비재 비중이 높음. 또한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절대적인 비중(86.7%)을 차지하나,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입 증가율(-8.6%)은 전국 평균(14.9%)을 크게 하회
- ▶ [한국의 수출] 한국의 대베이징시 수출 중 내수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95.7%(2014년)로 내수 중심의 수출 구조이며, 주로 중간재(61.0%)와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33.8%)에 수출이 집중
 - 가공단계별로는 중간재 위주의 수출 구조이나, 최근에는 최종재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그 비중이 점차 확대 추세
 -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절대적인 비중(99.4%)을 차지하는 가운데, △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 코크스·석탄·석유정제품 제조업 등 상위 3대 업종에 대한 수출 집중도가 61.3%에 달함.
- ▶ [수입시장 내 경쟁] 시장점유율과 시장비교우위지수(MCA) 분석을 통하여 경쟁우위 품목과 업종을 도출한 결과, 한국은 가공단계별로는 △ 반내구 소비재에서 경쟁우위를 나타냈으며, 업종별로는 △ 가죽·가방·신발 제조업 △ 코크스·석탄·석유정제품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가구 제조업에서 경쟁우위를 나타냄.
 - 반내구 소비재는 미국, 1차 금속 제조업은 일본, 가구 제조업은 대만·독일이 한국의 주요 경쟁국이었음. 가죽·가방·신발 제조업과 코크스·석탄·석유정제품 제조업은 한국이 절대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정책적 시사점] 베이징시는 최종재를 위주로 한 내수용 수입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의 대베이징 수출은 중간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베이징시의 수입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제품에 대한 경쟁우위를 계속 유지하되, 최종재 수입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품목을 새롭게 발굴하는 것이 긴요함.
 - 베이징시 수입시장은 이미 중간재에서 최종재 위주로 전환되었으나, 한국의 대베이징시 수출은 반제품을 중심으로 한 중간재와 승용차 등 일부 품목에 집중되어 있음. 그러나 한국산 중간재는 높은 시장점유율과 함께 강한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어 내수용 중간재 시장은 양보할 수 없는 시장이기도 함.
 - 따라서 현재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반제품 수출을 유지·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수입구조 변화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최종재 수입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새로운 수출품목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
 - 베이징시는 최근 소비재 수입이 빠르게 늘고 있으며, △ 농식품 △ 고급 의류 및 가전 △ 승용차 등 고급 소비재에 대한 소비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현지 소비자의 선호에 부응하고 소비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 수출품목의 다양화·고급화 △ 한국산 제품의 브랜드 가치 제고 △ 시장조사 및 모니터링 강화 등 다양한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최근 IT 기술 발전과 함께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새로운 유통채널인 인터넷쇼핑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중국 내 인터넷쇼핑 업체와의 협력 강화 및 새로운 플랫폼 구축을 위한 노력도 기울여나가야 할 것임.



중국 권역별·성별 기초자료 15-06

차 례

1. 서론
2. 베이징시 내수용 수입시장 현황
 - 가. 가공단계별 시장
 - 나. 업종별 시장
3. 한국의 대베이징시 내수용 수출 현황
 - 가. 한국의 대베이징시 수출 현황
 - 나. 가공단계별 내수용 수출
 - 다. 업종별 내수용 수출
4. 주요국의 베이징시 내수용 수입시장 내 경쟁 현황: 시장점유율 및 시장우위지수 분석
 - 가. 주요국의 베이징시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현황
 - 나. 가공단계별 경쟁 현황
 - 다. 업종별 경쟁 현황
5.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1. 서론

■ 본고는 중국의 지역별 내수용 수입시장에 대한 분석 시리즈의 하나로, 베이징시의 내수용 수입시장을 분석

- 중국 내 경제환경의 변화와 한·중 FTA를 계기로 중국 내수용 일반무역¹⁾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 특히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높고 지역별 교역특성이 상이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각 지역(省)별 내수용 수입시장 동향과 변화 추이를 세분하여 파악할 필요
- 중국 내 주요 지역(省)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가공단계별·업종별 수입 동향과 수입시장 내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간의 경쟁 현황 등을 분석함으로써 대중국 수출의 과제와 시사점을 도출
- 중국의 31개 성·시·자치구 지역을 동부, 중부, 서부, 동북의 4대 권역으로 구분한 후, 각 권역별로 한국의 내수용 수출 비중이 높은 지역(省)을 분석 대상지역으로 선정

베이징시 개황

-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시는 중국기업·다국적기업의 본사와 지역본부가 집중되어 있는 본사경제(总部经济)의 중심지²⁾
- IT 산업과 서비스업이 발달한 3차 산업(77.9%) 중심의 산업구조를 지닌 베이징시는 2015년 5월 「베이징시 서비스업 개방 확대 종합시범의 총체적 방안」과 11월 「베이징시 서비스업 대외개방 확대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며³⁾ 서비스업에 대한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실시
- 베이징시의 대외무역 정책목표는 △ 대외무역 상품구조의 고도화·다양화 △ 일차상품의 수출 비중 감소 △ 공업제품의 수출 비중 증대⁴⁾

<베이징의 위치>



자료: 위키피디아.

<주요경제지표>

항목	2010년	2012년	2014년	중국 내 순위
GRDP(억 위안)	14,113	17,879	21,330	13
GRDP 성장률(%)	10.3	7.7	7.3	25
고정자산투자(억 위안)	4,916	6,064	6,873	26
소비재 판매액(억 위안)	6,229	7,703	9,638	11
산업생산(억 위안)	13,699	15,596	17,856	19
산업생산 증가율(%)	24.1	7.5	2.8	-
FDI(백만 달러)	6,364	8,042	9,040	23
수출입 총액(억 달러)	1,105	1,286	1,331	8
수출	304	313	317	13
수입	801	973	1,014	5

주: 중국 수출입 통계는 지역별 해관통계와 CEIC 데이터 간 일부 차이가 있음. 2장부터는 해관통계 사용; 순위는 2014년 중국 내 31개 성(省)에서의 순위.

자료: CEIC; 한국무역협회.

1) 대부분 관세 감면·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가공무역과 달리 일반무역은 관세를 납부하고 거래되는 일반적인 무역방식임. 일반무역 형태로 수입된 상품의 경우 가공단계를 거치거나 원형 그대로 수입국 내에서 소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본고에서는 '내수용 수입(또는 수출)'이라는 용어로 대체함.

■ [대외무역] 베이징시의 교역규모는 2014년 1,331억 달러(전국 대비 3.1%)로 중국 전체에서 8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8.9%의 증가율을 기록

- 주요 수출대상국은 △ 일본 △ 미국 △ 독일 △ 대만 등이며, 주요 수입대상국은 △ 미국 △ 독일 △ 일본 △ 한국 등임.
- 베이징시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은 △ 모바일폰(22.7%) △ 석유와 역청유: 기타(3.8%) △ 프로세서와 컨트롤러(2.1%) △ 증폭기(1.9%) △ 모바일폰 부분품(1.9%)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 1,500~3,000cc 이하의 승용차(25.9%) △ 석유와 역청유(5.4%) △ 3,000cc 초과 승용차(3.2%) 등임.
- 한국과 베이징시 간 무역규모는 2011년 이후 소폭 하락 후 정체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 베이징시 전체 교역액대비 한국의 비중은 7.8%로 4위를 차지함.⁵⁾
- 한국은 베이징시의 6대 수출대상국이자 4대 수입대상국

그림 1. 전국 대비 베이징시 수출입액 비중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해외통계.

그림 2. 한국의 대베이징시 교역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해외통계.

■ [총수입] 베이징시의 총수입은 2005~14년 연평균 12.4%씩 증가하였으나, 2010년 이후 증가율은 소폭 하락

- 2005~09년 연평균 13.2% 증가하던 베이징시의 총수입은 2009~14년 11.8%로 소폭 하락하였으며, 2014년에는 전년대비 3.9% 증가에 그쳐 부진 심화
- 2014년 기준 전국 총수입에서 베이징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5.2%였으나, 2009~14년 연평균 증가율에서는 전국 평균(14.4%)을 하회

■ [무역방식별 수입] 베이징시는 총수입에서 일반무역(내수용)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2008년 이후 일반무역 수입 비중이 줄곧 90%를 상회(그림 3 및 표 1 참고)

2) 北京市商务委员会(2012), 「北京市“十二五”时期对外经贸发展规划」 (http://www.bjmbc.gov.cn/zwgk/fzgh/ndgh/201202/t20120228_57867.html); 单素敏(2014), 「中国总部经济调查:世界500强总部北京48家上海8家」, 『瞭望东方周刊』 (http://news.ifeng.com/shendu/lwdfzk/detail_2014_04/08/35558716_0.shtml, 검색일: 2015. 10. 27). 中国总部经济网(<http://www.zgzbj.com>)에 의하면 2014년 기준 세계 500대 기업 중 48개 기업의 중국 내 본사(headquarter)가 베이징에 소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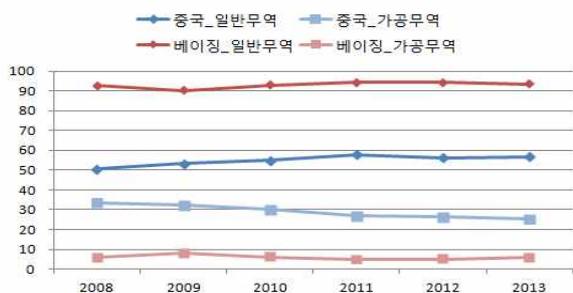
3) 北京市商务委员会(2015), 「国务院关于北京市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总体方案的批复」 (http://www.bjmbc.gov.cn/zt/fwyzh/zcwj_2263/201511/t20151103_69083.html, 검색일: 2015. 11. 3).

4) 原玲玲(2013), 「北京市对外贸易存在的问题及对策」, 『生产力研究: 对策研究』, 第12期, pp. 115~118.

5) 2014년 베이징시의 국가별 교역비중은 △ 미국(18.2%) △ 독일(15.7%) △ 일본(10.6%) △ 한국 △ 영국(3.0%) 순임.

- 2013년 기준 베이징시 총수입 대비 내수용 비중은 93.5%로, 수입의 대부분이 내수용이었음. 반면 가공무역 수입의 비중은 5.9%에 불과함.

그림 3. 베이징시의 일반무역 및 가공무역의 수입 비중
(단위: %)



자료: 각 년도 베이징통계연감.

표 1. 베이징시의 무역방식별 수입액

(단위: 억 달러)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총수입	2,058.6	1,585.5	2,351.7	3,150.4	3,309.7	3,497.5
일반무역	1,906.8	1,429.8	2,184.7	2,975.9	3,114.0	3,270.6
가공무역	121.5	130.7	146.5	149.2	167.2	206.6
기타	30.3	25.0	20.5	25.4	28.6	20.3

주: 2014년 수입시장의 세부항목별 데이터 획득의 어려움으로, 2008~13년 데이터를 활용함.

자료: 각 년도 베이징통계연감.

2. 베이징시 내수용 수입시장 현황

가. 가공단계별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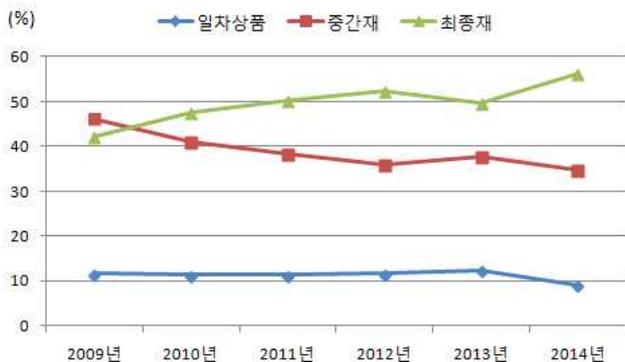
■ [총수입 구조] 베이징시 총수입시장은 가공단계로 구분할 때 2010년을 기점으로 중간재에서 최종재 중심의 수입구조로 전환되었으며, 특히 승용차와 비내구 소비재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소비재 수입 비중이 크게 확대

- 2009년 이후 최종재 수입이 연평균 18.4% 증가하면서 총수입대비 비중이 42.1%에서 56.1%로 상승, 일차상품과 중간재 비중을 크게 상회
 - 최종재 수입 비중의 상승은 소비재 수입 비중의 상승(19.3 → 38.8%)에 주로 기인하며, 특히 승용차 수입의 증가가 전체 최종재 수입 비중의 증가를 견인함. 베이징시 승용차 수입의 전국 대비 비중은 53.2%에 달함.
 - 반면 2009년 소비재 비중을 앞섰던 자본재는 연평균 증가율이 5.9%로 베이징시 평균(11.8%)과 소비재(28.6%)를 하회하면서 그 비중이 17.4%(2009년 22.8%)로 감소
- 중간재는 2009년 그 비중이 46.2%로 최종재를 앞섰으나 수입 증가율(5.6%)이 최종재(18.4%)를 크게 하회하면서 그 비중은 2014년 34.7%로 하락
 - 자본재 중 자본재 부품·부분품의 비중 감소(9.9%p 하락)가 주요 요인
 - 중간재 수입은 주로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와 자본재 부품·부분품에 집중됨.
- 일차상품은 2009년 11.7%에서 2014년 9.1%로 소폭 감소하였으며, 미가공 연료·윤활유의 비중이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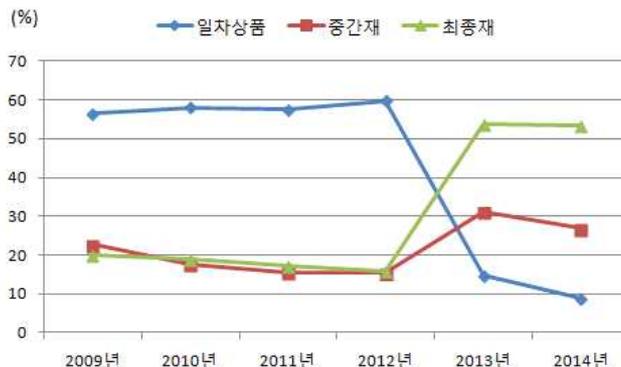
그림 4. 베이징시의 수입구조 비중 변화(가공단계별)

(1) 총수입



자료: 중국 해관통계.

(2) 내수용 수입



자료: 중국 해관통계.

■ [내수용 수입구조] 총수입과 마찬가지로 최종재 중심의 수입구조로 전환된 반면, 일차상품 수입 비중은 급격한 감소 추세를 나타냄(그림 4 참고).

- 베이징시의 내수용 수입은 최근 5년간 연평균 -8.0% 감소하며 전국(15.7%) 및 총수입(11.8%)의 증가율을 크게 하회
- 내수용 수입에서 최종재의 비중은 53.6%(2014년)로 일차상품이나 중간재를 크게 상회하였으며, 특히 승용차의 비중이 베이징시 전체 내수용 수입의 33.6%를 차지하고 있어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 집중도가 높았음.
 - 최종재 비중의 급격한 상승(2009년 대비 33.6%p 상승)은 소비자재 비중의 상승(7.8 → 38.8%)에 기인
 - 베이징시는 전국 내수용 소비자재 수입의 34.4%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수입 소비자재시장으로, 전국 내수용 수입에서 소비자재가 차지하는 비중(9.6%)보다 3.6배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 소비자재 가운데 특히 승용차 수입이 빠르게 증가(연평균 28.5%)하면서 소비자재 수입의 증가를 견인
 - 자본재의 수입 비중은 총수입과 달리 2009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14.8%를 차지
- 일차상품의 비중은 2009년 56.4%에서 2014년 8.8%로 축소(연평균 36.5% 감소)되었는데, 이는 미가공 연료·윤활유의 수입이 급감한 결과임(2009년 46.3% → 2014년 5.1%).

표 2. 베이징시의 가공단계별 내수용 수입시장 비중 및 증감률

분류	베이징시 총수입			베이징시 내수용 수입			중국 내수용 수입	
	구성비 (%)	연평균 증가율(%)	중국 내 비중(%)	구성비 (%)	연평균 증가율(%)	중국 내 비중(%)	구성비 (%)	연평균 증가율(%)
	2014년	2009~14년	2014년	2014년	2009~14년	2014년	2014년	2009~14년
일차상품	9.1	6.4	1.8	8.8	-36.5	1.9	38.9	16.7
미가공 산업용 식음료품	0.4	17.7	0.8	0.4	-26.9	0.8	4.2	18.4
미가공 산업용 원자재	3.2	1.7	1.5	3.3	-24.4	1.8	15.6	12.3
미가공 연료·윤활유	5.5	9.1	2.1	5.1	-40.7	2.3	19.1	20.8

표 2. 계속

분류	베이징시 총수입			베이징시 내수용 수입			중국 내수용 수입		
	구성비 (%)	연평균 증가율(%)	중국 내 비중(%)	구성비 (%)	연평균 증가율(%)	중국 내 비중(%)	구성비 (%)	연평균 증가율(%)	
	2014년	2009~14년	2014년	2014년	2009~14년	2014년	2014년	2009~14년	
중간재	34.7	5.6	3.8	26.8	-4.8	6.4	36.0	11.8	
반제품	17.7	8.7	3.9	15.5	-6.7	6.0	22.1	10.5	
가공된 산업용 식음료품	0.4	10.1	3.2	0.4	-18.0	3.6	0.9	7.8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	15.7	8.4	3.9	14.6	-3.7	6.6	18.9	9.9	
가공된 연료·윤활유	1.7	12.0	3.9	0.6	-29.3	2.2	2.3	17.5	
부품·부분품	17.0	2.8	3.7	11.3	-1.6	7.0	13.8	14.0	
자본재 부품·부분품	12.3	-0.7	3.0	6.8	-6.3	5.6	10.3	13.9	
운송장비 부품·부분품	4.7	17.8	9.0	4.6	9.2	11.1	3.5	14.4	
최종재	56.1	18.4	13.4	53.6	12.2	22.3	20.4	16.8	
자본재	17.4	5.9	6.2	14.8	-4.2	11.6	10.8	10.5	
자본재(운송장비 제외)	14.2	6.0	5.6	13.4	-4.2	11.0	10.3	12.0	
산업용 운송장비	3.2	5.2	11.7	1.4	-4.7	24.2	0.5	-7.0	
소비재	38.8	28.6	27.7	38.8	27.0	34.4	9.6	27.7	
미가공 가정용 식음료품	0.5	38.8	5.0	0.4	26.0	3.6	0.8	28.6	
가공된 가정용 식음료품	1.3	37.5	5.6	1.3	24.9	8.1	1.4	27.4	
승용차	31.3	28.8	53.2	33.6	28.5	56.5	5.1	31.9	
기타 비산업용 운송장비	0.0	46.2	6.3	0.0	33.8	6.7	0.0	40.6	
내구 소비재	1.0	23.7	12.2	1.0	21.3	23.5	0.4	20.8	
반내구 소비재	1.0	28.6	6.2	0.8	24.8	7.6	0.9	23.2	
비내구 소비재	3.6	24.5	16.2	1.6	11.7	13.5	1.0	18.0	
미분류	0.0	4.4	3.6	10.7	45.7	19.4	4.7	99.6	
전체	비중(또는 증가율)	100.0	11.8	5.4	100.0	-8.0	8.5	100.0	15.7
	금액(억 달러)	1,013.8	-	-	944.0	-	-	11,095	-

주: 가공단계 분류는 UN의 BEC 분류를 따름.

자료: 중국 해관통계.

■ [전국 대비] 중국 전체와 비교할 때 베이징시는 최종재 비중이 월등히 높고 일차상품 비중이 현저히 낮은 것이 특징

- 중국 전체 내수용 수입이 일차상품과 중간재 위주인 반면, 베이징시는 최종재 중심의 수입구조임.
 - 2014년 베이징시의 내수용 수입에서 최종재 비중은 53.6%로 전국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특히 소비재 비중은 전국 대비 3.6배 높은 비중을 차지함. 특히 승용차는 중국 전체 수입의 절반이 넘는 56.5%의 비중을 차지
 - 자본재와 소비재 모두 전국 대비 높은 비중을 보였으나,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전국에 비해 낮았음.
- 베이징시의 일차상품과 중간재 수입 비중은 전국 대비 각각 30.1%p, 9.1%p 낮았음.
 - 베이징시는 일차상품과 중간재 수입이 빠르게 감소(각각 -36.5%, -4.8%)하면서 전국 대비 비중의 격차도 더욱 확대

■ [품목별 내수용 수입] 최종재가 비중(53.6%)과 수입 증가율(12.2%) 모두 1위를 차지

- 최종재 수입 비중은 2009년(19.9%)에 비해 2.7배 증가하면서 절반 이상인 53.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소비재의 수입 비중이 크게 증가함(7.8 → 38.8%).
 - 소비재 수입의 증가는 승용차 수입 증가에 기인하며, 세부적으로는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이 소비재 수입을 주도
 - 자본재의 경우, 운송장비를 제외한 자본재의 비중이 크며, 특히 △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제조업 △기타 기계·장비

- 제조업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에서의 수입이 86.6%를 차지(표 3 참고)
- 내수용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소비재의 경우 HS 6단위 품목 기준으로 △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 의약품 물질·의약품 제조업 △ 인쇄·기록매체 복제업 등이 상위 수입 품목이며, 특히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수입에 집중된 것이 특징(표 4 참고)
- 일차상품 내수용 수입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6.5%의 수입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수입 비중이 2009년 56.4%에서 2014년 8.8%로 크게 축소됨
- 일차상품에 대한 내수용 수입은 2009~11년에 △ 담배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원자재 수입이 컸으나, 2012년 이후 이와 관련된 수입이 급감
- 중간재 수입 비중은 2009년 22.7%에서 2014년 26.8%로 증가했으나 수입 증가율은 연평균 -4.8%를 기록함(표 2 참고).
- 자본재 부품·부분품의 경우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제품과 기타 기계·장비 제품에 대한 수입이 85.7%를 차지
- 반제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의 경우 화학물질·제품과 1차 금속 제품에 대한 수입이 60.8%를 차지

표 3. 베이징시 내수용 중간재 및 최종재 수입시장의 업종별 비중(2014년)

가공단계 분류			세부 업종	수입액 (백만 달러)	비중 (%)	연평균 증가율 (2009~14년, %)
중간재 (26.8)	반제품 (15.5)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 (14.6)	화학물질·제품 제조업	6,708	48.8	0.5
			1차금속 제조업	1,647	12.0	-22.5
	부품·부분품 (11.3)	자본재 부품·부분품 (6.8)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842	6.1	19.2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제조업	3,627	56.8	-7.2
최종재 (53.6)	자본재 (14.8)	자본재(운송장비 제외) (13.4)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1,845	28.9	-6.0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제조업	4,689	37.1	8.3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3,159	25.0	9.9
	소비재 (38.8)	승용차(33.6)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제조업	3,093	24.5	-8.6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31,706	100.0	28.5

주: 가공단계 분류는 UN의 BEC 분류를 따름; 괄호 안의 수치는 베이징시 내수용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표시함.
자료: 중국 해관통계.

표 4. 베이징시 내수용 소비재 수입 상위 10대 품목(2014년)

순위	HS코드	품 목 명	수입액 (백만 달러)	소비재 내 비중 (%)	해당 업종
1	8703,23	실린더(1,500~3,000cc)	26,217	27.8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2	8703,24	실린더(3,000cc 초과)	3,233	3.4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3	8703,22	실린더(1,000~1,500cc)	794	0.8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4	3004,90	기타	639	0.7	의약품 물질·의약품 제조업
5	8703,33	실린더(2,500cc 초과)	520	0.6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6	8703,90	기타	409	0.4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7	8703,32	실린더(1,500~2,500cc)	340	0.4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8	4902,90	기타	222	0.2	인쇄·기록매체 복제업
9	8703,21	실린더(1,000cc 이하)	193	0.2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10	7113,19	기타 귀금속	169	0.2	기타 제품 제조업

주: HS 6단위 기준.
자료: 중국 해관통계.

나. 업종별 시장

- [총수입 구조] 제조업이 97.5%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농림수산업(0.6%)과 광업(1.9%)의 비중은 현저히 낮아 제조업 중심의 구조를 보임.
 - 업종별 비중에서는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34.8%)과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12.3%)이 총수입의 절반 정도를 차지함.
 -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의 경우 수입이 연평균 28.0% 증가하면서 그 비중이 17.7%에서 34.8%로 크게 확대된 반면,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의 경우 수입 증가율이 -3.0%를 기록하며 비중이 큰 폭으로 축소(25.0 → 12.3%)
 - 최근 5년간 빠른 수입 증가율을 보인 업종은 △ 음료 제조업(36.9%) △ 의복·의복액세서리·모피제품 제조업(31.5%) △ 목재·나무제품 제조업(30.3%) 등이었으나 수입 비중은 1%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임.
 - △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35.9%) △ 인쇄·기록매체 복제업(26.8%) △ 담배 제조업(26.0%)은 중국 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임.
- [내수용 수입 구조] 총수입과 마찬가지로 제조업이 압도적인 비중(86.7%)을 차지하는 구조이나 총수입에 비해 비중이 다소 낮아진 반면, 농림수산업과 광업의 비중은 총수입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 세부 업종별로는 총수입과 마찬가지로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37.3%)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 화학물질·제품 제조업(7.4%)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7.1%) △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제조업(6.5%)의 수입 비중이 컸음.
 -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7.1%의 높은 수입 증가율(2위)을 기록하였으며, 이에 따라 내수용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 7.4%에서 2014년 37.3%로 크게 확대
 - 화학물질·제품 제조업은 수입 증가율이 업종 평균(-8.0%)을 상회하며 수입 비중이 4.6%에서 7.4%로 확대
 - 최근 5년간 △ 음료 제조업(32.4%) △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27.1%) △ 의복·의복액세서리·모피제품 제조업(27.0%) △ 가죽·가방·신발 제조업(22.1%) 등의 업종에서 높은 수입 증가율을 보인 반면, 농림수산업(-21.3%)과 광업(-29.5%)은 수입이 크게 감소함.
 - 코크스·석탄·석유정제품 제조업(-39.5%)은 최근 5년간 수입이 가장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입 비중도 2009년 48.7%(1위)에서 6.0%로 크게 낮아짐. 이는 환경오염 유발 업종에 대한 베이징시 정부의 강력한 산업구조 조정정책에 따라 해당 산업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되거나 생산이 크게 축소되면서 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
- [전국대비] 중국 전체와 비교했을 때 베이징시의 업종별 수입시장 역시 제조업 중심의 수입구조를 보이고 있음. 다만 수입 비중은 전국 평균(79.7%)을 상회한 반면, 수입 증가율은 전국 평균(14.9%)을 크게 하회
 - 농림수산업과 광업의 수입 비중이 전국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은 반면, 제조업은 전국 평균(79.7%)보다 높았음.
 - 베이징시는 자동차·기계·IT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전국 제조업 내수용 수입의 9.2%를 차지하며 5위를 기록⁶⁾

6) 2014년 기준 상하이시(25.7%), 장쑤성(21.4%), 광둥성(19.8%), 산둥성(9.9%), 베이징시(9.2%) 순임.

- 세부 업종별 수입 비중은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이 전국 대비 약 4배 높은 37.3%의 비중을 보인 반면, 코크스·석탄·석유정제품 제조업(6.0%)은 전국 평균(22.1%)에 비해 그 비중이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음.
- 베이징시의 내수용 수입이 전체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농림수산업, 광업, 제조업 모두 전국에 비해 수입 증가율이 크게 낮았으며, 특히 광업에서의 격차는 41.8%p로 가장 크게 나타남.
- 세부 업종별로는 코크스·석탄·석유정제품 제조업(60.2%p)과 금속 광업(42.0%p)에서의 격차가 가장 컸음.

표 5. 베이징시의 내수용 수입시장 비중 및 증가율(업종별)

분 류	베이징시 총수입			베이징시 내수용 수입			중국 내수용 수입		
	구성비 (%)	연평균 증가율(%)	중국 내 비중(%)	구성비 (%)	연평균 증가율(%)	중국 내 비중(%)	구성비 (%)	연평균 증가율(%)	
	2014년	2009~14년	2014년	2014년	2009~14년	2014년	2014년	2009~14년	
농림수산업	0.6	18.8	1.2	0.6	-21.3	1.2	4.4	18.9	
광업	1.9	-1.8	1.3	2.0	-29.5	1.5	11.2	12.3	
금속 광업	1.8	-2.4	1.3	1.9	-30.0	1.5	10.6	12.0	
비금속광물 광업	0.1	15.4	1.4	0.1	-6.5	1.4	0.5	19.6	
제조업	97.5	12.2	5.1	86.7	-8.6	9.2	79.7	14.9	
식료품 제조업	2.2	24.9	0.7	2.0	2.0	4.4	3.5	21.9	
음료 제조업	0.3	36.9	9.0	0.3	32.4	16.0	0.1	22.2	
담배 제조업	0.5	20.2	26.0	0.5	-9.0	29.7	0.1	16.0	
섬유제품 제조업	1.1	11.3	4.9	1.2	5.8	10.7	0.9	23.6	
의복·의복액세서리·모피제품 제조업	0.5	31.5	7.3	0.4	27.0	7.7	0.4	27.9	
가죽·가방·신발 제조업	0.2	29.0	2.0	0.2	22.1	3.0	0.7	21.9	
목재·나무제품 제조업	0.4	30.3	1.7	0.4	8.6	2.1	1.6	33.5	
펄프·종이·종이제품 제조업	0.5	4.3	2.3	0.5	-2.1	3.0	1.4	8.4	
인쇄·기록매체 복제업	0.5	15.7	26.8	0.5	13.3	43.9	0.1	15.8	
코크스·석탄·석유정제품 제조업	7.4	10.2	2.4	6.0	-39.5	2.3	22.1	20.7	
화학물질·제품 제조업	7.8	14.0	4.6	7.4	1.0	6.5	9.7	10.6	
의약품 물질·의약품 제조업	3.6	27.0	19.0	1.4	14.0	13.4	0.9	16.2	
고무제품·플라스틱제품 제조업	0.9	15.2	3.1	0.9	12.8	5.3	1.4	17.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0.7	17.7	1.5	0.4	20.7	7.2	0.5	20.8	
1차 금속 제조업	1.7	-12.7	2.0	1.7	-22.8	3.4	4.4	-0.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0	12.0	6.2	1.0	4.1	9.0	0.9	12.3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12.3	-3.0	2.7	7.1	-7.8	6.3	9.6	14.9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제조업	7.2	14.3	13.0	6.5	8.8	18.5	3.0	16.1	
전기장비 제조업	2.6	4.6	4.4	2.1	-5.8	9.4	1.9	7.8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5.6	8.6	5.2	5.3	-8.5	7.0	6.5	10.8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34.8	28.0	35.9	37.3	27.1	39.7	8.0	24.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4.5	6.4	10.4	2.3	-5.8	17.6	1.1	0.5	
가구 제조업	0.3	15.4	10.4	0.3	16.0	14.6	0.2	16.2	
기타 제품 제조업	0.9	9.6	8.2	1.0	-5.9	14.6	0.6	15.1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	0.0	-	0.0	0.0	-	0.0	0.0	-0.4	
미분류	0.0	-	0.0	10.7	46.0	19.4	4.7	102.1	
전 체	비중(또는 연평균 증가율)	100.0	11.8	5.4	100.0	-8.0	8.5	100.0	15.7
	금액(억 달러)	1,013.7	-	-	944.0	-	-	11,094.9	-

주: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름.

자료: 중국 해관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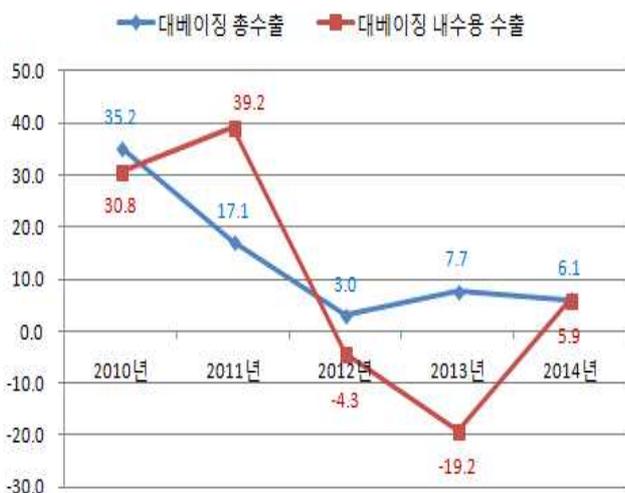
3. 한국의 대베이징시 내수용 수출 현황

가. 한국의 대베이징시 수출 현황

■ [총수출] 베이징시에 대한 한국의 총수출은 2009~14년 연평균 8.1% 증가함. 그러나 같은 기간 대중국 수출 증가율(13.0%)이나 베이징시의 대세계 수입 증가율(11.8%)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적임.

- 대베이징시 총수출 증가율은 2012년까지 계속해서 둔화되었다가 이후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반면 대중국 총수출 중 베이징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최고 수준(6.9%)을 기록한 후 하락세 지속

그림 5. 한국의 대베이징시 수출 증가율 추이



자료: 중국 해관통계.

그림 6. 한국의 대베이징시 수출 중 베이징의 비중 추이



자료: 중국 해관통계.

■ [무역방식별] 한국의 대베이징시 수출은 베이징시 수입구조와 마찬가지로 내수용 수출 위주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2014년 대베이징시 총수출 중 내수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95.7%에 달해 대중국 총수출 중 내수용이 차지하는 비중(32.9%)을 크게 상회

- 최근 5년간 대베이징시 내수용 수출은 연평균 8.3%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중국 내수용 수출(13.0%)보다 낮은 수준임. 이에 따라 대중국 내수용 수출에서 베이징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17.3%에서 2014년 14.3%로 소폭 감소함.

o 한국의 대중국 총수출에서 베이징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6.2%에서 2014년 4.9%로 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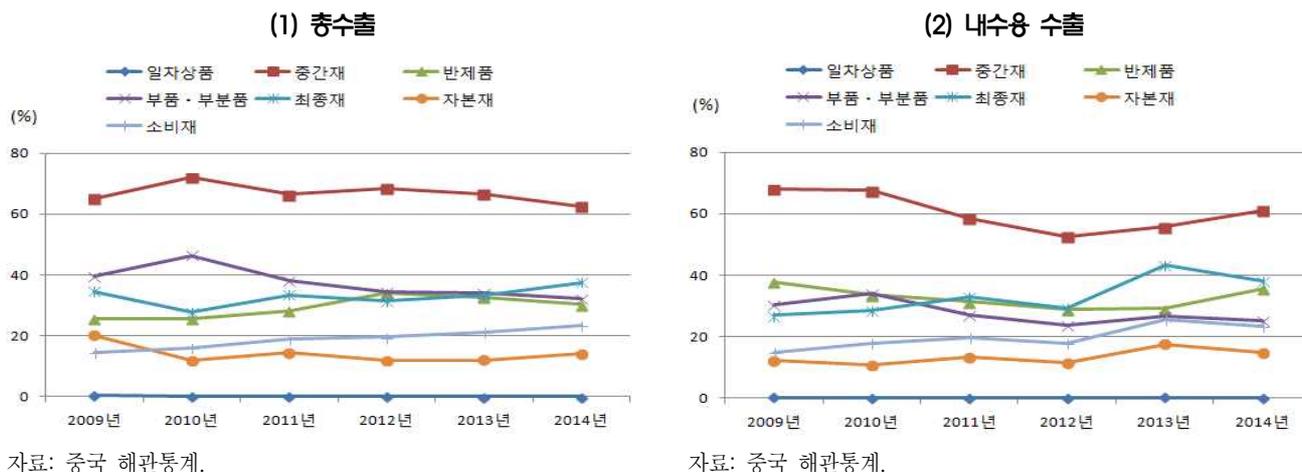
- 대베이징 내수용 수출 증가율은 2013년(-19.2%)까지 빠른 둔화세를 보였으나, 2014년(5.9%) 다소 회복세를 보임.

나. 가공단계별 내수용 수출

■ [총수출 구조] 베이징시 총수입이 최종재 중심인 것과 달리 한국의 대베이징 총수출은 중간재 중심의 수출구조임. 그러나 최근 최종재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비중이 점차 확대

- 한국의 대베이징시 총수출 중 중간재 비중은 62.5%(2014년)로 비교적 높은 수준인데, 이는 베이징시 총수입 중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34.7%)보다 약 2배 큰 비중임.
- 세부 품목별로는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16.7%)와 자본재 부품·부분품(19.2%)의 비중이 비교적 컸음.
- 최종재 수출 비중은 37.5%로 2009년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으며, 특히 소비재에 대한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그 비중도 비교적 크게 확대됨.
- 자본재의 경우 운송장비를 제외한 자본재 수출이 대부분이나 그 비중은 2009년에 비해 6.0%p 하락
- 소비재의 경우 수출 증가율(19.0%)이 베이징시 평균(8.1%)을 크게 상회하였으며, 비중도 14.5%에서 23.4%로 크게 확대됨. 특히 대베이징시 소비재 수출은 대중국 소비재 수출의 절반에 가까운 49.0%를 차지
- 대베이징시 소비재 수출은 승용차에 집중(17.0%)되어 있으며, 대중국 승용차 수출 중 98.2%를 차지
- 내구 소비재 수출 비중은 1.5%에 불과하지만 최근 5년간 수출이 급격히 증가(연평균 88.2%)한 품목이었음.

그림 7. 한국의 대베이징시 수출구조 변화(가공단계별)



자료: 중국 해관통계.

자료: 중국 해관통계.

표 6. 한국의 대베이징시 가공단계별 수출 비중 및 증가율

분류	대베이징시 총수출			대베이징시 내수용 수출			대중국 내수용 수출	
	구성비 (%)	연평균 증가율(%)	중국 내 비중(%)	구성비 (%)	연평균 증가율(%)	중국 내 비중(%)	구성비 (%)	연평균 증가율(%)
	2014년	2009~14년	2014년	2014년	2009~14년	2014년	2014년	2009~14년
일차상품	0.0	-33.1	0.4	0.2	2.0	2.5	1.1	3.9
미가공 산업용 식음료품	0.0	-	0.0	0.0	-	0.0	0.0	64.8
미가공 산업용 원자재	0.0	-33.1	0.4	0.2	2.0	2.5	1.1	3.9
미가공 연료·윤활유	0.0	-100.0	0.0	0.0	-	0.0	0.0	-

표 6. 계속

분류	대베이징시 총수출			대베이징시 내수용 수출			대중국 내수용 수출	
	구성비 (%)	연평균 증가율(%)	중국 내 비중(%)	구성비 (%)	연평균 증가율(%)	중국 내 비중(%)	구성비 (%)	연평균 증가율(%)
	2014년	2009~14년	2014년	2014년	2009~14년	2014년	2014년	2009~14년
중간재	62.5	7.2	3.9	61.0	6.0	11.1	78.6	12.6
반제품	30.3	11.8	4.2	35.7	7.1	10.8	46.6	10.2
가공된 산업용 식음료품	0.0	67.1	14.1	0.0	97.3	20.9	0.0	37.9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	16.7	8.4	2.6	19.0	6.2	6.3	42.7	10.2
가공된 연료·윤활유	13.6	17.0	18.9	16.6	8.3	60.7	3.8	9.8
부품부분품	32.2	3.8	3.6	25.3	4.5	11.8	32.0	16.8
자본재 부품·부분품	19.2	2.5	2.3	9.9	1.1	5.9	25.1	16.8
운송장비 부품·부분품	13.0	5.7	18.0	15.4	7.2	32.7	6.9	16.8
최종재	37.5	9.9	9.0	38.3	16.2	26.5	20.2	16.0
자본재	14.1	0.8	3.8	14.8	12.7	13.9	14.6	14.8
자본재(운송장비 제외)	14.1	0.8	3.9	14.4	12.8	13.5	14.5	15.2
산업용 운송장비	0.0	32.5	0.4	0.5	8.9	71.0	0.1	-8.0
소비재	23.4	19.0	49.0	23.5	18.7	62.6	5.7	19.5
미가공 가정용 식음료품	0.0	-10.6	0.8	0.0	-20.4	0.6	0.0	23.7
가공된 가정용 식음료품	0.9	19.7	14.5	1.4	24.6	32.6	0.7	32.2
승용차	19.1	17.0	98.2	19.4	17.3	95.0	2.8	14.1
기타 비산업용 운송장비	0.0	3.8	7.0	0.0	-4.4	9.4	0.0	17.4
내구 소비재	1.5	88.2	30.3	0.9	55.5	33.3	0.7	41.1
반내구 소비재	0.8	15.8	10.5	1.1	25.1	25.1	0.6	19.4
비내구 소비재	1.1	31.8	12.8	0.6	19.5	12.6	0.8	22.6
미분류	0.0	-	29.2	0.5	-32.3	63.6	0.1	-28.4
전체	비중(또는 연평균 증가율)	100.0	8.1	4.9	100.0	8.3	100.0	13.0
	금액(달러)	93.2	-	-	89.2	-	625.1	-

주: 가공단계 분류는 UN의 BEC 분류를 따름.

자료: 중국 해관통계.

■ [내수용 수출구조] 베이징의 내수용 수입에서 최종재의 비중이 가장 컸던 것과 달리 한국의 대베이징시 내수용 수출은 총수출과 마찬가지로 중간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그러나 최근 중간재 비중이 소폭 감소한 반면, 최종재 비중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임.

- 중간재 비중(61.0%)은 총수출과 비슷한 수준이나, 세부 품목별로는 반제품 비중이 크고 부품·부분품 비중이 작음.
- 반제품과 부품·부분품의 수출 증가율이 베이징시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면서 2009년에 비해 비중이 모두 하락하였으며, 특히 부품·부분품의 비중이 더 크게 낮아짐.
- 중간재 비중은 2009년에 비해 7.0%p 하락했는데, 이는 자본재 부품·부분품 수출의 66.2%를 차지하고 있는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제품의 수출 둔화(연평균 증가율 0.9%)에 기인(표 7 참고)
- 최종재 수출 비중은 27.0%에서 38.3%로 크게 확대되었는데, 이는 소비재 수출 비중의 확대(14.9 → 23.5%)에 기인
- 대베이징시 내수용 자본재 수출은 운송장비를 제외한 자본재에 집중
- 내수용 소비재 수출은 승용차 수출에 집중(19.4%)되었으며, 대중국 승용차 수출에서 베이징시는 95.0%의 비중을 차지
- 특히 가공된 가정용 식음료품(24.6%)과 내구 소비재(55.5%)에 대한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베이징시 평균(8.3%)을 크게 상회
- 반내구 소비재의 경우 수출 증가율과 수출 비중이 모두 증가했는데, 이는 고무·플라스틱 제품과 가죽·가방·신발 제품 수출의 빠른 증가에 기인

- 대베이징시 내수용 소비재 수출의 주요 품목(HS 6단위 기준)은 △ 실린더 △ 자당 △ 식품용 믹서·과즙 추출기 등이며, 대부분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등에 집중되어 있음.

표 7. 한국의 대베이징시 내수용 중간재 및 최종재 수출의 업종별 비중(2014년)

가공단계 분류			세부 업종	수출액 (백만 달러)	비 중 (%)	연평균 증가율 (2009~14년, %)	
중간재 (61.0)	반제품 (35.7)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 (19.0)	화학물질제품 제조업	467.1	27.5	8.6	
			1차금속 제조업	176.1	27.5	50.0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제조업	187.1	11.0	50.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76.1	10.4	1.9	
	부품·부분품 (25.3)	자본재 부품·부분품 (9.9)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 제조업	584.4	66.2	0.9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213.0	24.1	7.3	
	운송장비 부분·부분품 (15.4)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1,251.6	90.9	8.6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25.5	9.1	-2.6		
최종재 (38.3)	자본재 (14.8)	자본재(운송장비 제외) (14.4)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496.1	38.7	12.4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제조업	487.8	38.0	-5.5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198.0	15.4	24.4	
			전기장비 제조업	88.4	6.9	35.4	
	소비재 (23.5)	승용차(19.4)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1,733.3	100.0	17.3
				전기장비 제조업	55.7	65.4	63.0
		내구소비재 (0.9)	반내구 소비재 (1.1)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제조업	23.8	28.0	61.1
				고무제품·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2.4	40.6	22.3
				의복·의복액세서리·모피제품 제조업	23.8	22.5	9.9
				가죽·가방·신발 제조업	22.7	21.8	80.3
				기타 제품 제조업	135.1	70.1	291.0
				화학물질·제품 제조업	24.9	12.9	51.9
				의료용 물질·의약품 제조업	14.8	7.7	3.3
				비내구 소비재 (0.6)			

주: 가공단계 분류는 UN의 BEC 분류를 따름; 괄호 안의 수치는 대베이징시 내수용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중국 해관통계.

표 8. 한국의 대베이징시 소비재 수출 상위 10대 품목(2014년)

순위	HS 코드	품목명	수입액 (백만 달러)	소비재 내 구성비(%)	해당 업종
1	8703.23	실린더(1,500~3,000cc)	1,498.4	16.8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2	8703.32	실린더(1,500~3,000cc)	183.3	2.1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3	1701.99	기타 자당	94.7	1.1	식료품 제조업
4	8509.40	식품용 믹서·과즙 추출기	54.2	0.6	전기장비 제조업
5	8703.24	실린더(3,000cc 초과)	50.4	0.6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6	3926.90	기타	39.7	0.4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	9021.29	치과용의 기타 인조인체부품	22.9	0.3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제조업
8	3304.99	기타	18.2	0.2	화학물질·제품 제조업
9	3004.20	그 밖의 향생물질	11.8	0.1	의료용 물질·의약품 제조업
10	4202.31	피혁·인조 피혁	11.6	0.1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주: HS 6단위 기준.
자료: 중국 해관통계.

다. 업종별 내수용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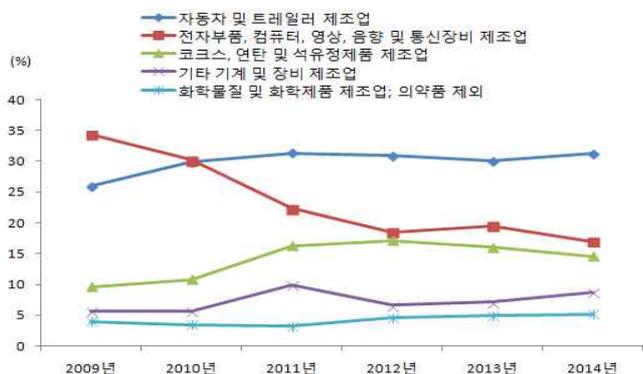
■ [총수출 구조] 대베이징시 총수출은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 코크스·석탄·석유정제품 제조업에 대한 수출 비중은 62.8%에 달함.

- 최대 수출업종인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은 최근 5년간 업종 평균(8.1%)보다 높은 연평균 12.1%의 증가율을 보이며 수출이 증가,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26.0%에서 2014년 31.2%로 증가
- 반면 수출 2위 업종인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의 경우 마이너스의 수출 증가율(-6.0%)을 기록하며 전체 대베이징시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3%에서 17.0%로 축소됨.
- 최근 5년간 수출 증가율은 수출 비중이 1%를 넘는 업종 가운데 △ 전기장비 제조업(27.7%) △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17.7%) △ 코크스·석탄·석유정제품 제조업(17.5%)에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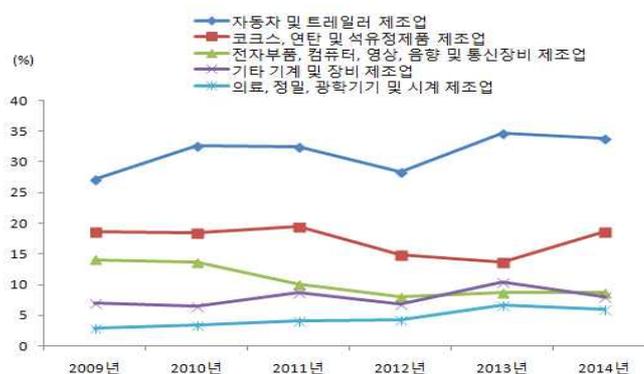
■ [내수용 수출구조] 내수용 수출 역시 제조업 비중이 99.4%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총수출(8.1%)을 소폭 상회하는 8.3%였음. 수출 비중 상위 2대 업종에 대한 수출집중도는 52.6%였음.

- 대베이징시 내수용 수출 상위 5대 업종은 △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33.8%) △ 코크스·석탄·석유정제품 제조업(18.8%)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8.8%) △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8.0%) △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제조업(6.0%)으로, 총수출 상위 5대 업종과 동일함.
- 내수용 수출 상위 5대 업종은 전체적으로 2012년 수출 비중이 감소한 후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그림 8 참고).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14.1 → 8.8%)을 제외한 업종의 수출 비중은 2009년 대비 확대되었으며, 특히 최대 수출 업종인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크게 확대(6.7%p)
- 제조업 중 △ 인쇄·기록매체 복제업(32.7%) △ 가죽·가방·신발 제조업(29.4%) △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제조업(25.6%) 등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출 증가율이 높은 업종임.
- 대중 내수용 수출 중 △ 인쇄·기록매체 복제업(53.7%) △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53.2%) △ 코크스·석탄·석유정제품 제조업(40.3%) 등의 업종은 베이징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음.

그림 8. 한국의 대베이징시 수출 비중 추이(상위 5대 업종)
(1) 총수출 (2) 내수용 수출



자료: 중국 해관통계.



자료: 중국 해관통계.

표 9. 한국의 대베이징시 업종별 수출 비중 및 증가율

분류	대베이징시 총수출			대베이징시 내수용 수출			대중국 내수용 총수출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중국 내 비중(%)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중국 내 비중(%)	구성비(%)	연평균 증가율(%)
	2014년	2009~14년	2014년	2014년	2009~14년	2014년	2014년	2009~14년
농림수산업	0.0	16.1	0.8	0.0	-8.0	0.5	0.1	29.1
광업	0.0	5.1	1.3	0.2	16.7	8.6	0.3	14.4
금속 광업	0.0	-100.0	0.0	0.2	54.3	26.3	0.1	2.0
비금속광물 광업	0.0	6.2	1.6	0.0	-9.3	2.6	0.2	21.5
제조업	100.0	8.1	4.3	99.4	9.3	14.2	99.5	12.8
식품 제조업	0.8	20.5	0.3	1.2	26.8	28.2	0.6	31.2
음료 제조업	0.1	14.1	13.1	0.2	13.7	23.5	0.1	24.0
담배 제조업	0.0	-	6.5	0.1	13.1	100.0	0.0	13.1
섬유제품 제조업	0.3	9.9	2.1	0.4	20.5	11.3	0.5	21.4
의복·의복액세서리·모피제품 제조업	0.2	4.9	12.8	0.3	9.4	19.1	0.2	15.1
가죽·가방·신발 제조업	0.2	8.3	3.0	0.4	29.4	32.4	0.2	26.2
목재·나무제품 제조업	0.0	30.7	1.6	0.0	25.2	1.9	0.0	19.2
펄프·종이·종이제품 제조업	0.1	-25.9	2.1	0.5	2.1	14.9	0.4	2.7
인쇄·기록매체 복제업	0.1	24.8	22.7	0.1	32.7	53.7	0.0	16.7
코크스·석탄·석유정제품 제조업	14.6	17.5	14.2	18.8	8.3	40.3	6.6	10.1
화학물질·제품 제조업	5.2	13.8	1.7	5.5	4.6	2.7	29.2	10.7
의료용 물질·의약품 제조업	0.2	29.7	9.5	0.2	6.8	13.1	0.2	14.7
고무·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1	14.2	4.9	1.9	13.8	10.5	2.5	19.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0.8	7.4	0.7	0.6	53.0	18.2	0.4	25.1
1차 금속 제조업	3.1	-1.1	3.7	5.2	1.6	12.0	6.3	2.7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3.0	11.2	13.7	2.6	10.3	20.2	1.8	12.5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17.0	-6.0	1.7	8.8	-1.4	5.2	23.9	14.8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제조업	5.7	13.3	14.4	6.0	25.6	28.2	3.0	25.9
전기장비 제조업	4.2	27.7	7.9	2.1	13.8	11.9	2.5	13.9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8.7	17.7	8.2	8.0	11.1	11.3	10.1	16.1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31.2	12.1	38.6	33.8	13.2	53.2	9.1	16.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	1.7	8.1	1.9	-0.5	26.3	1.0	6.5
가구 제조업	0.8	9.2	33.4	1.0	13.0	38.1	0.4	18.8
기타 제품 제조업	0.5	78.2	13.5	0.1	16.4	1.9	0.4	45.3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	0.0	0.0	-	0.0	0.0	0.0	0.0	-
미분류	0.0	0.0	-	0.5	-32.3	0.5	0.1	-26.1
전체	100.0	8.1	23.3	100.0	8.3	100.0	100.0	12.6
비중(또는 연평균 증가율)								
금액(억 달러)	93.2	-	-	89.2	-	-	625.1	-

주: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름.
자료: 중국 해관통계.

4. 주요국의 베이징시 내수용 수입시장 내 경쟁 현황: 시장점유율 및 시장우위지수 분석

가. 주요국의 베이징시 내수용 수입시장 진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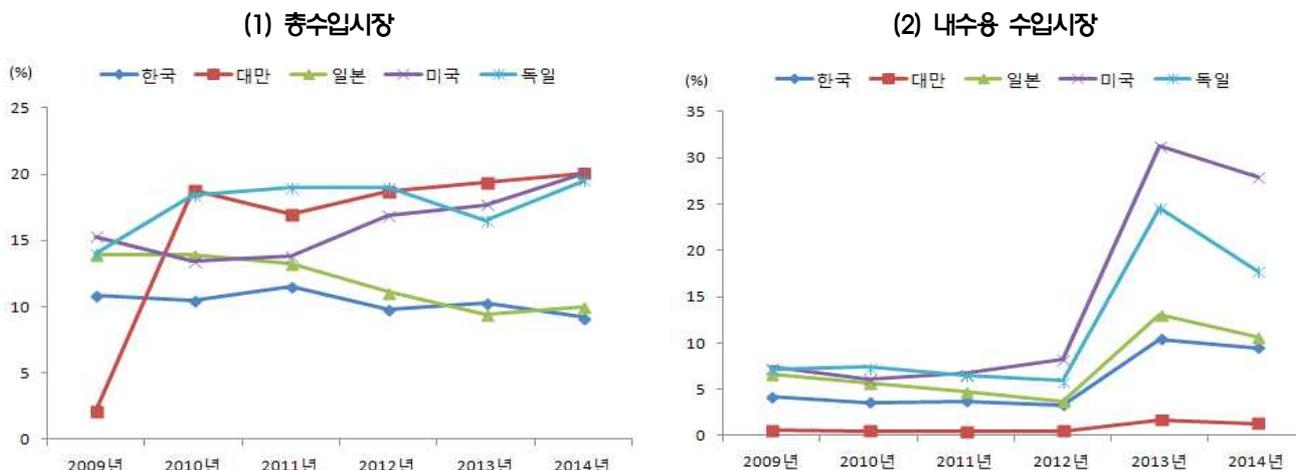
■ [베이징시 수입시장] 2014년 베이징시 총수입에서 주요 5개국(7)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78.9%였으나, 내수용 수입시

장에서는 이보다 낮은 67.2%의 비중을 보임.

- 베이징시 총수입에서 주요 5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56.2%에서 2014년 78.9%로 시장점유율이 대폭 상승함.
- o 베이징시는 대일본 수입이 가장 크게 둔화되면서 일본의 시장점유율이 10.0%까지 하락한 반면, 대만산 수입 비중이 급증하면서 대만이 미국과 함께 베이징시 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
- o 독일과 미국의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하면서 대만과 함께 베이징시 수입시장에서 경쟁이 심화
- 베이징시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주요 5개국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2009년 26.0%에서 2014년 67.2%로 대폭 상승하였으며, 주요 5개국 모두 2009년 대비 시장점유율이 상승함.
- o 2009년과 2014년의 점유율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폭으로 시장점유율이 확대된 국가는 미국(20.6%p)이었으며, 독일의 시장점유율(10.6%p)도 비교적 크게 상승
- o 미국(28.0%)이 압도적인 비중으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독일(17.8%)이 그 뒤를 잇고 있음. 한국(9.5%)은 일본의 뒤를 이어 점유율 4위를 차지
- 총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과 비교할 때 미국의 점유율은 더욱 확대(7.9%p)된 반면, 대만의 점유율은 크게 하락 (-18.8%p)
- 최근 5년간 베이징시 총수입시장 내 주요 5개국의 시장점유율 상승폭이 22.7%p(56.2 → 78.9%)였던 반면, 내수용 수입시장에서의 상승폭은 41.2%p(26.0 → 67.2%)로 약 2배임.
- o 이는 주요 5개국의 대베이징시 수출이 내수용 중심의 수출구조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

■ [한국의 시장점유율] 2014년 한국은 총수입시장에서 9.2%(5위),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9.5%(4위)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등 베이징시 수입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음.

그림 9. 한국과 주요국의 베이징시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자료: 중국 해관통계.

7) 주요 5개국은 중국의 상위 5대 수입대상국인 한국, 일본, 대만, 미국, 독일을 가리킴.

표 10. 주요 국가별 베이징시 내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베이징시 총수입					베이징시 내수용 수입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2009년	100.0	10.9	2.1	13.9	15.3	14.0	100.0	4.2	0.6	6.6	7.4	7.2
2010년	100.0	10.5	18.8	13.9	13.4	18.4	100.0	3.6	0.5	5.7	6.1	7.4
2011년	100.0	11.5	17.0	13.3	13.8	19.0	100.0	3.7	0.4	4.7	6.7	6.5
2012년	100.0	9.8	18.7	11.1	16.9	19.0	100.0	3.3	0.5	3.7	8.3	5.9
2013년	100.0	10.3	19.4	9.4	17.7	16.5	100.0	10.4	1.7	13.0	31.3	24.6
2014년	100.0	9.2	20.1	10.0	20.1	19.5	100.0	9.5	1.3	10.6	28.0	17.8

자료: 중국 해관통계.

나. 가공단계별 경쟁 현황

■ [한국의 점유율] 2014년 기준 한국은 중간재에서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21.4%)을 차지한 반면, 일차상품과 최종재에서는 각각 0.2%, 6.8%의 저조한 시장점유율 기록

- 내수용 중간재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2009년 12.5%에서 2014년 21.4%로 상승해 독일의 뒤를 이어 2위를 차지
 - 반제품과 부품·부분품의 시장점유율이 2009년 대비 각각 10.9%p, 5.5%p 상승하면서 중간재 수입시장에서의 점유율 상승을 견인
 - 반제품의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12.4%)와 부품·부분품의 운송장비 부품·부분품(31.8%)에서 특히 높은 점유율을 기록
- 최종재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4위로 저조한 실적을 보였으나, 일부 품목의 경우 시장점유율이 확대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둠.
 - 소비자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2009년 8.0%에서 2014년 5.7%로 축소된 반면, △ 내구소비재 △ 반내구 소비재 △ 비내구 소비재 등 일부 품목의 시장점유율은 확대되는 추세
 - 한국의 대베이징 승용차 수출이 최근 5년간 빠르게 증가(연평균 17.3% 증가)하였으나 시장점유율은 정체

■ [가공단계별 점유율 현황] 2014년 기준 미국은 일차상품과 최종재, 독일과 한국은 중간재 수입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

- 일차상품의 경우 미국이 주요국 대비 높은 시장점유율(47.7%)을 차지한 반면, 한국(0.2%)을 포함한 다른 국가의 시장 점유율은 매우 저조
- 중간재 수입시장에서 한국은 2009년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였으나, 2014년 독일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확대되면서 한국은 2위로 한 단계 하락함. 중간재 수입시장은 한국과 독일의 경쟁이 두드러짐.
 - 반제품에서는 한국의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부품·부분품에서는 독일의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았음.
 - 반제품의 경우 1·2위 국가간 점유율 격차가 0.6%p에서 3.6%p로 소폭 확대된 반면, 부품·부분품의 경우 1·2위 국가간 점유율 격차가 2.1%p에서 15.9%p로 크게 확대
- 최종재 수입시장에서는 미국이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24.3%)을 차지한 반면, 일본과 독일의 시장점유율은 다소 하락함.
 - 자본재의 경우 2009년 일본과 미국의 경쟁이 두드러졌으나 2014년 미국과 독일이 경쟁하는 시장으로 변화
 - 소비자 수입시장에서는 미국이 대부분의 소비자 품목에서 선두를 차지하면서 가장 높은 시장점유율(21.8%)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반내구 소비재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

표 11. 베이징시 내수용 수입시장 내 주요국의 시장점유율(가공단계별)

(단위: %)

	2009년					2014년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전체	4.2	0.6	6.6	7.4	7.2	9.5	1.3	10.6	28.0	17.8
일차상품	0.0	0.0	0.1	1.7	0.0	0.2	0.0	0.0	47.7	0.4
미가공 산업용 식음료품	0.0	0.0	0.1	53.5	0.1	-	-	-	-	-
미가공 산업용 원자재	0.1	0.0	0.2	1.9	0.1	0.1	0.0	0.0	11.3	0.1
미가공 연료·윤활유	0.0	0.0	0.0	0.0	0.0	0.0	0.0	0.0	2.9	0.0
중간재	12.5	2.0	11.3	11.5	10.3	21.4	3.1	11.2	17.8	22.8
반제품	10.8	1.3	9.1	11.4	6.2	21.7	2.9	11.0	18.1	12.3
가공된 산업용 식음료품	0.0	0.0	0.0	1.8	0.1	0.6	0.0	0.0	37.8	7.8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	7.6	1.4	10.5	14.0	7.6	12.4	2.9	11.5	18.2	12.7
가공된 연료·윤활유	30.9	1.1	4.6	0.6	0.3	-	-	-	-	-
부품·부분품	15.6	3.4	15.2	11.9	17.7	21.1	3.4	11.5	17.4	37.0
자본재 부품·부분품	9.5	4.2	13.0	12.2	17.1	13.8	5.5	13.1	26.1	29.8
운송장비 부품·부분품	34.8	0.8	21.9	10.9	19.8	31.8	0.3	9.2	4.6	47.7
최종재	5.7	0.5	19.7	19.4	24.2	6.8	0.8	14.0	24.3	21.7
자본재	4.2	0.7	19.8	19.4	16.7	9.5	2.7	22.3	31.0	28.8
자본재(운송장비 제외)	4.5	0.8	19.9	17.3	17.5	10.1	3.0	24.2	27.0	29.3
산업용 운송장비	1.6	0.0	18.6	38.5	9.2	-	-	-	-	-
소비재	8.0	0.2	19.6	19.4	35.9	5.7	0.1	10.8	21.8	18.9
미가공 가정용 식음료품	1.0	0.0	1.0	6.7	0.0	0.0	0.3	0.3	12.6	5.1
가공된 가정용 식음료품	9.6	0.5	1.0	12.0	2.9	9.6	0.9	0.6	16.1	10.0
승용차	8.6	0.0	22.9	20.9	40.1	5.5	0.0	11.9	23.1	19.3
기타 비산업용 운송장비	0.0	14.3	0.0	28.6	14.3	0.0	16.7	0.0	23.3	26.7
내구 소비재	2.4	0.8	9.9	17.6	15.5	8.5	0.9	8.5	15.3	17.5
반내구 소비재	13.6	0.8	5.4	7.0	10.3	13.9	0.8	2.2	6.3	5.7
비내구 소비재	2.7	2.1	5.6	13.0	29.4	3.8	1.1	6.1	13.3	29.0
미분류	18.4	0.0	7.1	0.1	0.0	0.4	0.4	0.4	56.0	0.0

주: 가공단계 분류는 UN의 BEC 분류코드를 따름.

자료: 중국 해관통계.

- [한국의 시장비교우위지수] 시장비교우위지수(MCA)⁸⁾ 분석 결과 한국은 중간재와 최종재 중 자본재에서 비교우위를 나타낸 반면, 일차상품과 최종재 중 소비재에서는 비교열위를 보임.

8) 시장비교우위지수(MCA: Market Comparative Advantage)는 어느 국가의 특정 수출품목이 특정 지역 또는 국가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지표로, 시장점유율과 달리 경제 및 수출 규모가 상이한 국가간에도 경쟁력 비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이 지표는 Balassa의 현시비교우위지수(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를 변형한 것으로, 계산식은 아래와 같음.

$$MCA_{ij}^k = \frac{X_{ij}^k / X_{js}^k}{WX_{ij}^k / WX_{js}^k} \quad (\text{단 } MCA_{ij}^k \text{ 는 } i \text{국 } j \text{상품의 베이징시에서의 시장비교우위지수, } X_{ij}^k \text{ 는 } i \text{국의 대베이징시 } j \text{상품}$$

수출액, X_{js}^k 는 i 국의 대베이징시 총수출액, WX_{ij}^k 는 전 세계의 대베이징시 j 상품 수출액, WX_{js}^k 는 전 세계의 대베이징시 총수출액)

RCA와 마찬가지로 시장비교우위지수가 1보다 크면 해당 품목은 수입시장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함.

- 중간재를 세부 품목으로 구분할 때 △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 △ 자본재 부품·부분품 △ 운송장비 부품·부분품에서 시장 비교우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중간재 수출품에 대한 시장비교우위는 2009년 대비 2014년 다소 약화되었으며,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는 모든 세부 품목들 역시 비교우위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남.
- 최종재는 2009년 비교우위에서 2014년 비교열위로 전환된 품목으로, 특히 소비재에서의 비교우위 상실이 두드러짐.
- 자본재, 특히 운송장비를 제외한 자본재는 비교우위가 다소 강화된 품목임.
- 소비재의 경우 대부분의 품목이 비교열위를 보이는 가운데 가공된 가정용 식음료품과 반내구 소비재가 비교우위를 나타냄.

■ [가공단계별 시장비교우위지수] 2014년 일본은 중간재와 최종재, 독일은 중간재와 최종재, 대만은 중간재에서 각각 비교우위를 보임(표 12 참고).

- 일차상품에서는 주요국이 모두 비교열위를 나타냄.
- 중간재에서는 한국을 비롯하여 대만, 일본, 독일이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부품·부분품의 경우 5개국 모두 비교우위를 보임.
- 자본재의 경우 미국을 제외한 4개국이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일본이 가장 큰 비교우위를 나타냄. 또한 독일은 산업용 운송장비에서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는 유일한 국가임.
- 소비재의 경우 일본과 독일이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음.
- 일본은 승용차, 독일은 승용차와 비내구 소비재, 한국은 반내구 소비재에서 비교우위를 보유
- 미국은 식음료품, 내구소비재, 반내구 소비재, 비내구 소비재에서 비교우위를 확보

표 12. 주요 국가의 베이징시 내 시장비교우위지수(가공단계별)

	2009년					2014년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일차상품	0.00	0.01	0.01	0.23	0.00	0.02	0.02	0.01	0.01	0.02
미가공 산업용 식음료품	0.00	0.00	0.01	7.20	0.00	-	-	-	-	-
미가공 산업용 원자재	0.03	0.04	0.06	0.38	0.02	0.07	0.06	0.01	0.03	0.04
미가공 연료·윤활유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중간재	3.00	3.57	1.71	1.55	1.44	2.42	2.32	1.06	0.65	1.28
반제품	2.59	2.26	1.38	1.53	0.86	2.45	2.17	1.04	1.03	0.70
가공된 산업용 식음료품	0.00	0.01	0.00	0.24	0.01	0.06	0.01	0.00	0.13	0.44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	1.81	2.45	1.59	1.89	1.07	1.40	2.16	1.09	1.09	0.71
가공된 연료·윤활유	7.39	1.92	0.70	0.07	0.04	-	-	-	-	-
부품·부분품	3.72	5.92	2.30	1.60	2.48	2.39	2.52	1.09	1.70	2.09
자본재 부품·부분품	2.27	7.37	1.98	1.64	2.39	1.56	4.09	1.24	3.09	1.68
운송장비 부품·부분품	8.33	1.32	3.32	1.46	2.76	3.60	0.20	0.87	1.27	2.69

표 12. 계속

	2009년					2014년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최종재	1.36	0.94	3.00	2.61	3.38	0.77	0.63	1.33	0.06	1.22
자본재	1.00	1.28	3.01	2.61	2.33	1.07	2.03	2.11	0.59	1.62
자본재(운송장비 제외)	1.07	1.41	3.03	2.33	2.44	1.15	2.23	2.29	0.82	1.65
산업용 운송장비	0.38	0.00	2.82	5.18	1.29	0.35	0.10	0.37	0.14	1.35
소비재	1.92	0.41	2.98	2.61	5.02	0.65	0.10	1.03	0.02	1.07
미가공 가정용 식음료품	0.18	0.49	0.12	0.96	0.04	0.01	0.20	0.02	6.06	0.29
가공된 가정용 식음료품	2.30	0.67	0.15	1.61	0.40	1.08	0.72	0.06	4.44	0.57
승용차	2.06	0.00	3.47	2.81	5.59	0.62	0.00	1.12	0.00	1.09
기타 비산업용 운송장비	0.11	15.38	0.32	3.13	2.21	-	-	-	-	-
내구 소비재	0.59	1.50	1.50	2.38	2.17	0.97	0.65	0.81	5.46	0.99
반내구 소비재	3.28	1.57	0.81	0.92	1.42	1.57	0.65	0.21	17.96	0.32
비내구 소비재	0.65	3.62	0.85	1.75	4.10	0.43	0.84	0.58	5.18	1.64
미분류	4.38	0.00	1.09	0.02	0.00	0.04	0.32	0.04	0.07	0.00

주: 가공단계 분류는 UN의 BEC 분류코드를 따름.
자료: 중국 해관통계.

다. 업종별 경쟁 현황

■ [한국의 점유율] 한국은 주요 4개국에 비해 제조업에서 10.8%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한 반면, 농림수산업과 광업의 시장점유율은 매우 미미한 수준임.

- 제조업 수입시장 내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10.8%로 4위를 차지하였으며, 1위 국가와의 점유율 격차는 2009년 3.5%p에서 2014년 11.5%p로 크게 확대됨.
-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2009년에 비해 6.4%p 상승했으나 미국(22.3%)과 독일(20.5%)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상승하면서 이들 국가와의 격차는 더욱 확대
- 한국은 △ 코크스·석탄·석유정제품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가구 제조업 △ 가죽·가방·신발 제조업 △ 의복·의복액세서리·모피제품 제조업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 2009년과 2014년의 제조업 내 세부 업종의 시장점유율을 비교하면 한국은 17개 업종에서 점유율이 상승된 반면 5개 업종에서는 점유율이 하락함.
- 코크스·석탄·석유정제품 제조업(28.1%p)과 1차 금속 제조업(21.2%p)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확대된 반면, 음료 제조업(-6.3%p)과 가구 제조업(-4.9%p)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하락한 업종임.

■ [국가별 점유율] 제조업 수입시장에서 주요 5개국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은 2009년 대비 39.7%p 상승

- 주요 5개국의 제조업 내 점유율은 27.5%에서 67.2%로 크게 상승하였으며, 특히 미국(14.9%p)과 독일(12.6%p)의 점유율 상승이 두드러짐.

- 2014년 기준으로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을 제외한 제조업 내 23개 세부업종 중에서 국가별 점유율 1위 업종의 수는 미국이 9개로 가장 많았음.
- o 다른 국가들의 경우 한국 5개, 독일 5개, 일본 3개, 대만 1개로, 2009년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1개 업종이 감소하고 대만은 1개 업종이 증가

표 13. 베이징시 내수용 수입시장 내 주요국의 시장점유율(업종별)

(단위: %)

분류	2009년					2014년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전체	4.2	0.6	6.6	7.4	7.2	9.5	1.3	10.6	28.0	17.8
농림수산업	0.0	0.0	0.2	52.5	0.3	0.0	0.0	0.5	0.0	2.5
광업	0.1	0.0	0.0	0.4	0.0	0.9	0.1	0.1	6.7	0.1
금속 광업	0.0	0.0	0.0	0.1	0.0	0.7	0.0	0.0	6.5	0.0
비금속광물 광업	5.8	1.7	4.1	24.8	0.0	4.6	2.3	1.1	11.5	2.3
제조업	4.4	0.6	7.2	7.4	7.9	10.8	1.5	12.1	22.3	20.5
식료품 제조업	1.9	0.1	0.5	6.5	0.3	5.8	0.7	0.4	32.7	6.5
음료 제조업	12.3	0.0	3.1	4.6	12.3	6.0	0.0	0.8	5.3	21.9
담배 제조업	0.5	0.0	0.3	14.1	0.4	1.6	0.4	0.4	34.2	0.4
섬유제품 제조업	1.6	0.1	1.2	8.2	1.3	3.0	0.3	1.4	73.5	1.7
의복·의복액세서리·모피제품 제조업	15.5	2.9	4.9	1.9	2.9	7.3	0.9	1.5	2.0	0.3
가죽·가방·신발 제조업	12.0	0.0	1.2	1.2	10.8	15.1	0.0	0.4	3.6	2.2
목재·나무제품 제조업	0.0	0.0	0.4	4.8	3.6	0.0	0.0	0.3	35.2	8.5
펄프·종이·종이제품 제조업	7.0	0.4	5.3	9.0	2.4	8.6	2.9	5.4	23.6	6.3
인쇄·기록매체 복제업	0.8	0.8	6.8	40.2	9.2	1.5	1.3	2.4	43.2	6.2
코크스·석탄·석유정제품 제조업	1.6	0.1	0.3	0.1	0.0	29.7	0.7	0.7	4.7	0.7
화학물질·제품 제조업	5.9	2.2	7.6	22.5	8.5	7.1	2.9	8.8	23.5	11.8
의료용 물질·의약품 제조업	2.3	2.0	3.3	10.8	38.6	1.6	0.2	4.6	10.8	40.5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8.5	0.9	17.4	13.3	10.8	19.5	1.3	21.6	12.3	20.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8	13.4	11.5	12.7	17.2	12.2	29.7	21.9	8.7	11.5
1차 금속 제조업	7.2	0.6	13.5	8.8	5.1	28.4	0.8	16.6	8.9	14.9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9.1	1.2	5.5	12.7	29.6	25.2	1.2	6.7	11.4	35.7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8.3	4.3	22.7	11.5	7.3	11.6	8.1	26.3	23.1	17.6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제조업	4.3	0.4	15.9	28.4	16.6	10.4	0.9	20.8	34.8	26.8
전기장비 제조업	3.7	0.5	15.7	13.5	24.7	9.4	1.3	16.5	22.8	44.9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5.4	0.4	15.5	13.0	27.1	-	-	-	-	-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15.3	0.0	19.3	20.9	36.4	8.6	0.0	11.5	21.4	22.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5.7	0.7	26.4	26.2	16.3	7.5	0.4	5.0	41.6	32.1
가구 제조업	39.0	1.6	6.5	1.6	30.9	34.1	2.7	0.8	4.7	32.6
기타 제품 제조업	0.2	0.2	2.1	13.2	9.5	0.6	0.7	16.3	6.7	1.7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미분류	18.6	0.0	0.1	7.2	0.0	0.4	0.4	0.4	56.1	0.0

주: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름.
 자료: 중국 해관통계.

■ [한국의 시장비교우위지수] 업종별 시장비교우위지수(MCA)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제조업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 내 24개 세부 업종 중에서 비교우위를 갖는 수출 업종이 2009년 14개에서 2014년 9개로 감소함. 7개 업종이 비교우위에서 비교열위 업종으로 전환된 반면, 2개 업종만이 비교우위 업종으로 전환됨.
- 비교열위로 전환된 업종은 △ 음료 제조업 △ 의복·의복액세서리·모피제품 제조업 △ 펄프·종이·종이제품 제조업 △ 화학물질·제품 제조업 △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제조업 △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임.
- 비교우위로 전환된 업종은 코크스·석탄·석유정제품 제조업과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임.
- 한국의 대베이징시 내수용 수출 상위 5대 업종⁹⁾ 가운데 코크스·석탄·석유정제품 제조업의 비교우위가 상당히 크게 전환됨.

■ [주요 업종별 시장비교우위지수] 제조업은 미국을 제외한 4개국(대만, 일본, 독일, 한국)이 비교우위를 나타낸 반면, 농림수산업에서는 미국이 강한 비교우위를 보임.

- 베이징시의 내수용 수입 상위 5대 업종¹⁰⁾은 한국이 대체로 비교열위를 나타내는 업종임.
-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은 일본과 독일이 비교우위를 확보한 업종이며, 한국은 비교열위로 전환된 업종임.
- 화학물질·제품 제조업은 5개국 중 대만이 유일하게 비교우위를 보이는 업종이며, 한국은 비교열위로 전환된 업종임.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은 한국과 대만, 일본이 비교우위를 확보한 업종이며, 특히 대만의 비교우위가 가장 크게 나타남.
-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제조업은 일본, 미국, 독일이 비교우위를 보유한 업종이며, 한국은 비교열위로 전환됨.
- 인쇄·기록매체 복제업은 미국만 비교우위를 보이는 업종으로, 한국은 2009년 이후 줄곧 비교열위를 보이는 업종임.
- 제조업 내 24개 세부 업종에서 한국은 모두 9개 업종에서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대만은 6개, 일본 9개, 미국 8개, 독일 10개 업종에서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어 독일이 비교적 다양한 세부 업종에서 비교우위를 보유함.

표 14. 주요 국가의 베이징시 내 시장비교우위지수(업종별)

	2009년					2014년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농림수산업	0.00	0.02	0.03	7.07	0.04	0.00	0.03	0.04	14.25	0.14
광업	0.02	0.04	0.01	0.05	0.01	0.10	0.08	0.01	0.24	0.00
금속 광업	0.00	0.00	0.00	0.02	0.01	0.08	0.00	0.00	0.23	0.00
비금속광물 광업	1.29	3.38	0.59	3.31	0.01	0.49	1.75	0.13	0.40	0.10
제조업	1.06	1.11	1.10	1.00	1.11	1.15	1.11	1.15	0.80	1.15
식료품 제조업	0.46	0.18	0.08	0.87	0.04	0.61	0.52	0.04	1.17	0.37
음료 제조업	3.11	0.58	0.43	0.60	1.73	0.64	0.05	0.08	0.19	1.22
담배 제조업	0.13	0.10	0.03	1.89	0.06	0.17	0.25	0.05	1.22	0.02
섬유제품 제조업	0.37	0.13	0.18	1.11	0.18	0.31	0.17	0.14	2.62	0.09
의복·의복액세서리·모피제품 제조업	3.74	5.57	0.66	0.22	0.37	0.79	0.65	0.14	0.08	0.02

9) △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 코크스·석탄·석유정제품 제조업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제조업이 이에 해당함.

10) △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 화학물질·제품 제조업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제조업 △ 인쇄·기록매체 복제업이 이에 해당함.

표 14. 계속

	2009년					2014년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한국	대만	일본	미국	독일
가죽·가방·신발 제조업	2.75	0.27	0.17	0.23	1.55	1.62	0.05	0.04	0.12	0.13
목재·나무제품 제조업	0.00	0.08	0.16	0.62	0.51	0.00	0.01	0.03	1.25	0.48
펄프·종이·종이제품 제조업	1.66	0.77	0.79	1.21	0.33	0.91	2.20	0.51	0.84	0.36
인쇄·기록매체 복제업	0.16	1.30	1.02	5.40	1.30	0.16	0.99	0.22	1.54	0.35
코크스·석탄·석유정제품 제조업	0.38	0.12	0.04	0.01	0.00	3.14	0.54	0.07	0.17	0.04
화학물질·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1.42	3.86	1.15	3.03	1.19	0.75	2.14	0.83	0.84	0.66
의료용 물질·의약품 제조업	0.52	3.50	0.50	1.45	5.38	0.17	0.11	0.44	0.39	2.28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44	1.69	2.64	1.80	1.51	2.06	0.96	2.04	0.44	1.17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0.90	23.78	1.78	1.74	2.41	1.30	22.31	2.08	0.31	0.64
1차 금속 제조업	1.72	1.03	2.06	1.18	0.72	3.00	0.64	1.57	0.32	0.8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4.55	2.19	0.85	1.71	4.15	2.69	0.90	0.63	0.41	2.01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1.99	7.56	3.45	1.55	1.01	1.23	6.11	2.48	0.82	0.99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제조업	1.02	0.65	2.42	3.82	2.32	0.92	0.54	1.65	1.04	1.27
전기장비 제조업	0.87	0.94	2.38	1.81	3.46	0.99	0.96	1.56	0.81	2.53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1.28	0.77	1.97	2.09	3.79	1.49	1.89	2.03	1.03	2.47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3.66	0.03	3.17	2.6	5.08	0.91	0.02	1.09	0.76	1.2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36	1.18	3.98	3.54	2.27	0.79	0.25	0.47	1.48	1.81
가구 제조업	9.32	3.12	0.31	0.90	4.35	3.61	2.05	0.08	0.16	1.83
기타 제품 제조업	0.04	0.28	2.01	0.29	1.32	0.05	0.50	1.54	0.24	0.10
전기·가스·증기·공기조절 공급업	0.00									
미분류	4.43	0.00	1.10	0.01	0.00	0.04	0.32	0.04	2.00	0.00

주: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름.

자료: 중국 해관통계.

5.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 [베이징시 내수용 수입] 베이징시는 총수입 가운데 90% 이상이 일반무역(내수용) 형태인 지역이며, 2012년을 기점으로 중간재 중심에서 최종재 중심의 수입구조로 전환되었음.

- 가공단계별로 볼 때 베이징시 내수용 수입에서 최종재가 절반 이상인 5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소비재 수입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최종재 중에서 승용차 수입 비중이 전체의 33.6%를 차지하고 있어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 집중도가 높음.
-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절대적인 비중(86.7%)을 차지하나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입 증가율(-8.6%)은 전국 평균(14.9%)을 크게 하회
 - 세부 업종별로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37.3%) △화학물질·제품 제조업(7.4%)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7.1%)이 수입 상위 3대 업종임.

- [한국의 수출] 한국의 대베이징시 수출 중 내수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95.7%(2014년)로 내수 중심의 수출구조이며, 주로 중간재(61.0%)와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33.8%)에 수출이 집중되어 있음.
 - 한국의 대베이징시 내수용 수출은 가공단계별로 볼 때 중간재 위주의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에는 최종재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그 비중도 점차 확대 추세임.
 - 최종재 중 승용차에 대한 수출 비중은 전체 수출의 33.6%에 달해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집중도가 높은 구조
 - 최근 내구 소비재, 비내구 소비재, 반내구 소비재, 가공된 가정용 식음료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빠르게 증가
 -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절대적인 비중(99.4%)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 비중 상위 3대 업종인 △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제조업 △ 코크스·석탄·석유정제품 제조업에 대한 수출 집중도가 61.3%에 달함.
- [수입시장 내 경쟁구도] 시장점유율과 시장비교우위지수(MCA)를 함께 고려하여 경쟁우위 품목 또는 업종¹¹⁾을 도출한 결과 한국은 가공단계별로는 △ 반내구 소비재에서 경쟁우위를 나타냈으며, 업종별로는 △ 가죽·가방·신발 제조업 △ 코크스·석탄·석유정제품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가구 제조업에서 경쟁우위를 나타냄.
 - 가공단계별로 구분할 때 한국의 주요 경쟁국은 반제품에서는 대만·일본·미국이었으며, 반내구 소비재에서는 미국이 주요 경쟁국이었음.
 - 업종별로 구분할 때 1차 금속 제조업은 일본, 가구 제조업은 대만·독일이 한국의 주요 경쟁국이었으며, 가죽·가방·신발 제조업과 코크스·석탄·석유정제품 제조업은 한국이 절대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정책적 시사점] 베이징시는 최종재를 위주로 한 내수용 수입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의 대베이징 수출은 중간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베이징시의 수입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제품에 대한 경쟁우위를 계속 유지하되 최종재 수입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품목을 새롭게 발굴하는 것이 긴요함.
 - 베이징시 수입시장은 기존의 중간재에서 최종재로 전환되었으나 한국의 대베이징시 수출은 반제품을 중심으로 한 중간재와 승용차 등 일부 품목에 집중되어 있음. 그러나 한국산 중간재는 높은 시장점유율과 함께 강한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어 내수용 중간재 시장은 양보할 수 없는 시장이기도 함.
 - 따라서 현재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반제품 수출을 유지·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수입구조 변화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최종재 수입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새로운 수출품목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
- 베이징시는 최근 소비재 수입이 늘고 있으며(연평균 27.0% 증가), △ 농식품 △ 고급 의류 및 가전 △ 승용차 등 고급 소비재에 대한 소비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역임. 따라서 급변하는 소비자 수요에 맞춰 △ 수출품목의 다양화·고급화 노력 △ 인터넷쇼핑 등 새로운 유통방식의 확대 및 활용도 제고 △ 시장조사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소비재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

11) 시장점유율 분석과 시장비교우위 분석을 바탕으로 가공단계별 또는 업종별 내수용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이 1위이면서 한국의 시장비교우위지수가 1 이상인 품목이나 업종을 한국이 경쟁우위를 갖는 품목(또는 업종)으로 분류했으며, 또한 해당 품목이나 업종에서 시장비교우위지수가 1 이상인 국가를 수입시장 내 경쟁국가로 분류함.

- 베이징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소비재 수입 비중(38.8%)이 높은 지역으로, 최근 들어 △ 식음료품 △ 승용차 △ 내구소비재 △ 반내구 소비재 등에 대한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역임.
- 또한 높은 소득수준 및 생활수준 향상으로 고급 소비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며, 활발한 한국기업 진출과 교민사회 형성 및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가 비교적 높은 지역이기도 함.
-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현지 내수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 소비패턴 및 구조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시장조사 강화 △ 한국산 제품의 브랜드 가치 제고 △ 소비재 수출품목의 다양화·고급화 등을 포함하는 적극적인 대응전략이 필요
- 또한 최근 IT 기술 발전과 함께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새로운 유통채널인 인터넷쇼핑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중국 내 인터넷 쇼핑업체와의 협력 강화 및 새로운 플랫폼 구축을 위한 노력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웨이신(微信)이나 웨이보(微博) 등 중국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접하고 사용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연계하여 한국 제품을 홍보·판매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중문자료]

- 国家统计局. 2010 『北京统计年鉴2010』. 中國統計出版社.
- _____. 2011 『北京统计年鉴2011』. 中國統計出版社.
- _____. 2012 『北京统计年鉴2012』. 中國統計出版社.
- _____. 2013 『北京统计年鉴2013』. 中國統計出版社.
- _____. 2014 『北京统计年鉴2014』. 中國統計出版社.
- 『单素敏』(2014. 4. 8). 「中国总部经济调查: 世界500强总部北京48家上海8家」. 瞭望东方周刊 http://news.ifeng.com/shendu/lwdfzk/detail_2014_04/08/35558716_0.shtml(검색일: 2015. 10. 27). (참고: 中国总部经济网. <http://www.zgzbj.com/>).
- 『北京市商务委员会』(2012. 2. 28). 「北京市“十二五”时期对外经贸发展规划」. http://www.bjmcc.gov.cn/zwgk/fzgh/ndgh/201202/t20120228_57867.html (검색일: 2015. 10. 26).
- 『北京市商务委员会』(2015. 11. 3). 「国务院关于北京市服务业扩大开放综合试点总体方案的批复」. http://www.bjmcc.gov.cn/zt/fwyzh/zewj_2263/201511/t20151103_69083.html(검색일: 2015. 11. 3).
- 原玲玲. 2013. 『北京市对外贸易存在的问题及对策』. 「生产力研究: 对策研究」, 12: 115-118.
- 『中国城市发展网』(2015. 2. 3). 「2014年各省人均GDP排序 吉林居第11位」. <http://www.chinacity.org.cn/csph/csph/218209.html>(검색일: 2015. 10. 27).

[웹사이트 및 데이터베이스]

- 위키피디아.
- 한국무역협회 해외통계.
- 중국 해관통계.
- CEIC Database.